

오다 노부타카는 오다 노부나가(1534~1582)의 삼남으로 1582년부터 1583년까지 기후성의 성주였지만, 이세 지방(미에현 동부)을 중시한 아버지 노부나가에 의해 간베 가문의 후계자로서 양자로 입양되었다. 1582년에 아버지 노부나가로부터 시코쿠를 정벌하라는 명을 받은 노부타카가 시코쿠 지방으로 향했지만, 그 사이 노부나가는 교토에서 신뢰하던 가신 아케치 미쓰히데(1528~1582)에게 배신당해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그 소식을 들은 노부타카는 마찬가지로 노부나가의 가신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1537~1598)와 재빨리 연대하여 교토 교외의 야마자키에서 아케치 미쓰히데를 처단했다.

아버지 노부나가와 맏형 노부타다(1557~1582)의 죽음으로 노부타카와 둘째 형 노부카쓰(1588~1630) 사이에서 오다 가문의 후계자 문제가 불거졌다. 결국에는 아직 어렸던 맏형 노부타다의 아들 히데노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견 하에 가문을 계승하게 되었다. 노부타카는 기후성을 수중에 넣었지만, 히데요시가 아버지 노부나가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계략을 꾸민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히데요시를 공격하기 위해 가신 중 하나였던 시바타 가쓰이에와 손을 잡았다. 1583년에 시바타 가쓰이에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시즈가타케(시가현)에서 전투를 벌인 끝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승리하고 패한 시바타 가쓰이에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쓰이에를 잃고 지위가 약화된 노부타카는 히데요시 편에 속해 있던 형 노부카쓰가 기후성을 포위하고 공격해오자, 결국 기후성을 내주게 되었다. 그 후 노부타카는 지타반도(아이치현)의 우쓰미로 추방되었다가 노부카쓰의 명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